

##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의 본문 유형과 국문 번역사 고찰

김태섭\*

### 1. 들어가며

1998년 『개역개정』 초판이 출간된 이후 23년이 지나면서, 현재 대한성서공회는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sup> 이에 즈음하여, 원문(原文)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개역개정』의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서는 원문을 확정하는 본문비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에서 본문비평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 중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이다.<sup>2)</sup> 이 비유는 사본에 따라 다양한 이문 읽기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본문 유형을 선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ktaesup@puts.ac.kr](mailto:ktaesup@puts.ac.kr). 이 논문은 2022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의 필요성”, <https://www.bskorea.or.kr/> (2022. 7. 11)

2)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sowie in Theorie und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320에서 알란트 부부(K. Aland and B. Aland)는 “두 아들의 본문이 의심의 여지없이 신약 본문비평의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였다(Nun gehört die Perikope von den beiden Söhnen ohne Frage zu den schwierigsten Aufgaben neutestamentlicher Textkritik). 알란트 부부는 이 단락의 소제목을 ‘Das Gleichnis von den beiden Söhnen’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GNT<sup>5</sup> 역시 ‘The Parable of the Two Sons’라고 소제목을 달고 있으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도 28절 위에 ‘두 아들의 비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소고(小考)도 마 21:28-32를 ‘두 아들의 비유’로 지칭하고자 한다.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개역개정』(4판, 2005)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애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역개정』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인 반응이 서로 뒤바뀌어 있고, 이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역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소고(小考)는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사본들을 통해 원문에 가까운 본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본문의 우리말 번역사(翻譯史)를 다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본문 유형에 관한 고찰

NTG<sup>28</sup>와 GNT<sup>5</sup>의 비평 장치를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사본상의 주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21:28-31상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 부분에 관한 여러 이문(異文) 읽기가 존재하지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sup>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사본으로는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  $\kappa$ ),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그리고 베자 사본(Codex Bezae, D)이 있다. 이 대문자 사본들은 구두점 없이 연속쓰기(scriptio continua)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 ex.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  $\kappa$ )

ΤΙ ΔΕ ΥΜΙΝ ΔΟΚΕΙ ΑΝΘ̄Σ ΕΙΧΕΝ ΤΕΚΝΑ Β̄ ΠΡΟΣΕΛΘΩΝ ΤΩ  
 ΠΡΩΤΩ ΕΙΠΕΝ ΤΕΚΝΟΝ ΥΠΑΓΕ ΣΗΜΕΡΟΝ ΕΡΓΑΖΟΥ Ε̄ ΤΩ  
 ΑΜΠΕΛΩΝΙ Ο ΔΕ ΑΠΟΚΡΙΘΕΙΣ ΕΙΠΕΝ ΟΥ ΘΕΛΩ Υ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ΙΣ ΑΠΗΛΘΕΝ ΠΡΟΣΕΛΘΩΝ ΔΕ ΤΩ ΕΤΕΡΩ<sup>5)</sup> ΕΙΠΕΝ  
 ΩΣΑΥΤΩΣ ΕΓΩ Κ̄Ε ΚΑΙ ΟΥΚ ΑΠΗΛΘΕΝ ΤΙΣ ΕΚ ΤΩΝ Β̄ ΕΠΟΙΗΣΕ  
 ΤΟ ΘΕΛΗΜΑ ΤΟΥ Π̄ΡΣ̄ ΛΕΓΟΥΣΙΝ Ο ΠΡΩΤΟΣ

3)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하여 NTG<sup>28</sup>의 비평 장치는 21:28-31상반의 이문들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31하반절(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이하)에 대해서는 NTG<sup>28</sup>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32절에는 2가지 이문(異文)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첫째는 *Ἰωάννης πρὸς ὑμᾶς*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 구절의 어순이 바뀌어 *πρὸς ὑμᾶς Ἰωάννης*라고 기록된 사본들은 대문자 사본 중에 D, K, W, Δ, Θ, 0102가 있으며, 소문자 사본 중에는 1번(*f*<sup>1</sup>)과 13번(*f*<sup>13</sup>) 계통 사본군(群), 565, 579, 700, 1241, 그리고 비잔틴 계열의 대다수 본문(℣)이 있고, 번역본으로는 고대 라틴어 번역 일부와 불가타역(*lat*) 그리고 시리아역 전체(*sy*)가 이러한 읽기를 지지한다. 또한 *πρὸς ὑμᾶς Ἰωάννης* 중에 *πρὸς ὑμᾶς*를 아예 생략한 소문자 사본 1424도 있다. 32절에 관하여 언급된 두 번째 이문 읽기는 *μετεμελήθητε* 앞에 부정어 *οὐδέ*와 관련한 내용이다. 부정어를 *οὐδέ*가 아닌 *οὐ*로 기록한 사본은 대문자 사본 중에  $\kappa$ , C, K, L, W가 있으며, 소문자 사본 중에는 565, 579, 1241, 1424 그리고 비잔틴 계열의 대다수 본문(℣)이 있다. 또한 부정어를 생략한 사본들도 있는데, 대문자 사본 D와 라틴어 역본 중에서 c, e, ff<sup>1</sup>가 여기에 해당하며, 시내산 시리아 역본(*sy*<sup>s</sup>) 역시도 부정어를 생략하고 있다. GNT<sup>5</sup>는 비평 장치에서 21:28-31상반에 관한 사본상의 차이들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 31하반절에 관한 언급은 없고, 32절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관련 구절들만을 표시하고 있다.

4) I. H. Jones, *The Matthean Parables: A Literary and Historical Commentary* (Leiden: Brill, 1995), 390-399에서 존스(I. H. Jones)는 4가지 본문 유형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마태복음 학자들은 알란트 부부(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317)와 메츠거(B. M. Metzger)의 3가지 분류를 따르는 바(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sup>nd</sup>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2], 44-46), 본 소고(小考)도 본문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그 외의 사본학적 차이들은 필요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5) 시내산 사본을 보면, ΕΤΕΡΩ를 이후에 교정자가 ΔΕΥΤΕΡΩ로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TG<sup>28</sup>은 이를 시내산 사본 제2교정자의 수정으로 판단한다.

(私譯: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애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렴.”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원치 않습니다.” 후에 누우치고 갔다. 다른 이[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한다. “첫째입니다.”)

제2유형: ex.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ΤΙ ΔΕ ΥΜΙΝ ΔΟΚΕΙ ΑΝΘΡΩΠΟΣ ΕΙΧΕΝ ΔΥΟ ΤΕΚΝΑ ΚΑΙ ΠΡΟΣΕΛΘΩΝ ΤΩ ΠΡΩΤΩ ΕΙΠΕΝ ΤΕΚΝΟΝ ΥΠΑΓΕ ΣΗΜΕΡΟΝ ΕΡΓΑΖΟΥ Ε̅ ΤΩ ΑΜΠΕΛΩΝΙ ΜΟΥ Ο ΔΕ ΑΠΟΚΡΙΘΕΙΣ ΕΙΠΕΝ ΕΓΩ ΚΕ̅ ΚΑΙ ΟΥΚ ΑΠΗΛΘΕΝ ΠΡΟΣΕΛΘΩΝ ΔΕ ΤΩ ΔΕΥΤΕΡΩ ΕΙΠΕΝ ΩΣΑΥΤΩΣ Ο ΔΕ ΑΠΟΚΡΙΘΕΙΣ ΕΙΠΕΝ ΟΥ ΘΕΛΩ Υ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ΕΙΣ ΑΠΗΛΘΕΝ ΤΙΣ ΕΚ ΤΩΝ ΔΥΟ ΕΠΟΙΗΣΕΝ ΤΟ ΘΕΛΗΜΑ ΤΟΥ ΠΑΤΡΟΣ ΛΕΓΟΥΣΙΝ Ο ΥΣΤΕΡΟΣ

(私譯: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애야, 오늘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렴.”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원치 않습니다.” 후에 누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한다. “후자입니다.”)

제3유형: ex. 베자 사본(Codex Bezae, D)

ΤΙ ΔΕ ΥΜΙΝ ΔΟΚΕΙ ΑΝΘΡΩΠΟΣ ΕΙΧΕΝ ΤΕΚΝΑ ΔΥΟ ΚΑΙ ΠΡΟΣΕΛΘΩΝ ΤΩ ΠΡΩΤΩ ΕΙΠΕΝ ΤΕΚΝΟΝ ΥΠΑΓΕ ΣΗΜΕΡΟΝ ΕΡΓΑΖΟΥ ΕΙΣ ΤΟ ΑΜΠΕΛΩΝΑ Ο ΔΕ ΑΠΟΚΡΕΙΘΕΙΣ ΕΙΠΕΝ ΟΥ ΘΕΛΩ ΥΣΤΕΡΟΝ ΔΕ ΜΕΤΑ<sup>6)</sup> ΜΕΤΑΜΕΛΗΘΕΙΣ ΑΠΗΛΘΕΝ ΕΙΣ ΤΟΝ ΑΜΠΕΛΩΝΑ ΠΡΟΣΕΛΘΩΝ ΔΕ ΤΩ ΕΤΕΡΩ ΕΙΠΕΝ ΩΣΑΥΤΩΣ Ο ΔΕ ΑΠΟΚΡΕΙΘΕΙΣ ΕΙΠΕΝ ΕΓΩ ΚΕ ΥΠΑΓΩ ΚΑΙ ΟΥΚ ΑΠΗΛΘΕΝ ΤΙΣ ΕΚ ΤΩΝ ΔΥΩ ΤΟ ΘΕΛΗΜΑ ΤΟΥ ΠΑΤΡΟΣ ΕΠΟΙΗΣΕΝ ΛΕΓΟΥΣΙΝ Ο ΑΙΣΧΑΤΟΣ<sup>7)</sup>

6) 연속쓰기로 된 대문자 사본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로 보인다. 이어서 나오는 ‘ΜΕΤΑΜΕΛΗΘΕΙΣ’의 첫 4글자를 베자 사본 필사자가 실수로 중복 기록한 것인데, 이후에 교정자가 ΜΕΤΑ 위에 점을 찍어 표시했다.

7) 베자 사본 필사자는 ‘ΕΣΧΑΤΟΣ’를 ‘ΑΙΣΧΑΤΟΣ’로 쓰는 경향이 있다. 마 20:16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ΟΥΤΩΣ ΕΣΟΝΤΑΙ ΟΙ ΑΙΣΧΑΤΟΙ ΠΡΩΤΟΙ ΚΑΙ ΟΙ ΠΡΩΤΟΙ ΑΙΣΧΑΤΟΙ ΟΙ ΠΟΛΛΟΙ ΓΑΡ ΕΙΣΙΝ ΚΛΗΤΟΙ ΟΛΙΓΟΙ ΔΕ ΕΚΛΕΚΤΟΙ (私譯: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리라.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적은 자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私譯: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애야,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렴.”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 그리고 다른 이[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한다. “막내입니다.”)

위에 열거된 본문 유형 중에, 우선 3번째가 가장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리스어 사본으로 베자 사본(D)이 있고, 고대 라틴어 역본들(it)<sup>8)</sup> 및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고대 시리아 역본들(sy<sup>a,c</sup>)이 있다. 이 비유의 청중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21:23) 그리고 바리새인들(21:45)인데, 그들은 비유를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막내’라고 답을 한다. 하지만 이 본문 유형에 따르면, 막내는 ‘일하러 가겠다고 말하고서 실제로는 가지 않은’ 뻔뻔한 아들이다. 만약 정상적인 경우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첫째’라고 대답했어야 한다. 이처럼 제3유형의 본문은 대화의 흐름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만약 본문비평의 원칙들 중에서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를 유지한 본문이 우선한다’<sup>9)</sup>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제3유형의 본문이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8) NTG<sup>28</sup>이 비평 장치에서 사용하는 ‘it’는 다수의 고대 라틴어 역본들을 집단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이다. 반면에 GNT<sup>5</sup>는 구체적인 라틴어 역본들을 열거하고 있다 (it<sup>a,aur,b,d,e,ff1,ff2,g1,h,l,r1</sup>). 이 11개의 역본들은 대략 4세기에서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틴어 역본들이다: a는 4세기; aur는 7세기; b, d, e, ff<sup>2</sup>, h는 5세기; r<sup>1</sup>은 7세기; ff<sup>1</sup>, l은 8세기; g<sup>1</sup>은 8세기 또는 9세기. 여기에 열거된 라틴어 역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베르셀렌시스 사본(Codex Vercellensis, a, 4세기)의 마 21:28-31상반은 다음과 같다: quid aut[em vo]bis videtur homo qui[dam] habebat duos filios et accedens ad primum dixit illi vade hodie operari in vineam ille autem responde[ns] ait non et postea autem paenitentia motus abiit in vineam accessit autem ad alterum et dixit similiter ad ille respondens ait eo domine et non iit quis ex duobus fecit patris voluntatem dicunt ei novissimus(私譯: 그러나 너희는 두 아들을 가진 한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첫째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한다. “아니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다. 그리고 그가 다른 이[아들]에게 가서 그에게 마찬가지로 말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한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그는 가지 않았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막내입니다.”). 베르셀렌시스 사본의 내용은 다음의 인쇄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 A. Gasquet, ed., *Codex Vercellensis* (Roma: Fridericus Pustet, 1914), 89.

9)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85.

10) 대표적으로 J. R. Michaels, “The Parable of the Regretful Son”, *HTR* 61 (1968), 15-26 참고.

그러나 이 본문 유형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리스어 사본으로는 베자 사본이 유일한데, 주지하다시피 다른 대문자 사본들( $\alpha$ , B 등)에 비해 베자 사본에는 ‘서방본문’ 특유의 자유로움(단어나 어절의 첨가, 순서의 변경 등)이 많이 나타난다.<sup>11)</sup> 이처럼 사본상의 증거가 빈약한 것은 제3유형의 본문이 원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sup>12)</sup> 그리고 31상반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답변 이후, 31상반-32절에 나오는 예수의 반응을 보아도 그들의 대답이 ‘논리적으로 어긋났다’는 암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sup>13)</sup> 만약 그들이 제3유형처럼 몰상식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면, 예수께서 이를 꾸짖거나 교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cf. 9:4-6, 12-13, 15-17; 12:1-8, 22-37; 15:1-20), 이러한 과정 없이 예수는 비유에 대한 해설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sup>14)</sup> 이는 유대 지도자들의 대답이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아도,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엉뚱하지 않다. 바로 이어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 21:33-46)를 보면, 청중인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의 흐름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다(21:40-41):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저 매우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들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할 것입니다(私譯).’ 따라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제3유형의 본문을 복음서 기자가 아닌 필사자에게서 유래한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sup>15)</sup> 그리하여 메츠거(B. M. Metzger)는 유대 지도자들의 황당한 답변을 필사자의 실수(혼동) 또는 반(反) 바리새주의적 편견(anti-Pharisaic bias)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한다.<sup>16)</sup>

11) B. M. Metzger and B.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sup>th</sup>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71-73.

12) 알란트 부부는 본문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그리스어 (사본) 전송’(die griechischen Überlieferungen)이라고 제안한다: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84. 이 때문에 제3유형의 본문은 결정적인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13) W. G. Olmstead, *Matthew's Trilogy of Parables: The Nation, the Nations and the Reader in Matthew 21.28-22.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69-170.

14) W. D. Davies and D. C. Allis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vol. 3 (Edinburgh: T&T Clark, 1997), 167 n. 18.

15) D. A. Hagner, *Matthew 14-28* (Dallas: Word Books, 1995), 612;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44;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319-320;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2007), 802-803; D. L. Turner, *Matth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511.

16)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45. 그러나 반(反) 바리새주의적 편견(anti-Pharisaic bias)에 기인한다는 메츠거의 추정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베자 사본의 경우, 이어지는 32하반절에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회심과

결국, 제1유형과 제2유형 중에서 양자택일만이 남는다. NTG<sup>28</sup>에 따르면, 제1유형에 해당하는 사본들은 — 비록 서로 근소한 차이들이 있으나 — 대표적으로 시내산 사본을 비롯한 대문자 사본들(C, K, L, W, [Z], Δ, 0102, 0281), 소문자 사본으로는 *f*<sup>1</sup>(소문자 1번 계통 사본군), 33, 565, 579, 892, 1241, 1424번 사본까지와 ㉸(비잔틴 계열의 다수 본문)이 있다. 그리고 번역본으로는 개별 라틴어 역본 *f*, *q*와 *vg*<sup>wv</sup>(워즈워스[J. Wordsworth]와 화이트[H. J. White]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1889년~1954년 동안 출판한 불가타 역본), *sy*<sup>ph</sup>(시리아어 페쉬타와 하르켈 역본들), *sa*<sup>ms</sup>(몇몇 사히드 방언 역본들)와 *mac*(중부 이집트어 역본들)가 있으며, 교부 증거로는 *Hier*<sup>ms</sup>(히에로니무스[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가 알고 있다는 사본들)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유형에 해당하는 사본들은 대표적으로 대문자 사본 B와 Θ, 소문자 사본으로는 *f*<sup>13</sup>(소문자 13번 계통 사본군)과 700번 사본,<sup>17)</sup> 번역본으로는 불가타와 몇몇 고대 라틴어 역본(*lat*)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sa*<sup>ms</sup>(몇몇 사히드 방언 역본들), *bo*(보하이르 방언 역본들), 그리고 교부 증거로는 *Hier*<sup>ms</sup>(히에로니무스가 알고 있다는 사본들)가 있다.<sup>18)</sup> 메츠거는 여기에 아르메니아어 역본(*arm*)과 게오르기아어 역본(*geo*)을 추가하고 있으며,<sup>19)</sup>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도 이 본문 유형을 따르고 있다.

---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ΟΙ ΔΕ ΤΕΛΩΝΑΙ ΚΑΙ ΑΙ ΠΟΡΝΑΙ ΕΠΙΣΤΕΥΣΑΝ ΑΥΤΩ ΥΜΕΙΣ ΔΕ ΕΙΔΟΝΤΕΣ ΜΕΤΕΜΕΛΗΘΗΤΕ ΥΣΤΕΡΟΝ ΤΟΥ ΠΙΣΤΕΥΣΑΙ ΑΥΤΩ”(私譯: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이후에 뒤우쳐 그를 믿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다수 사본들과 달리 베자 사본은 부정어 ‘οὐδέ(οὐ)’를 생략했다. 그리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회개에 이른 것으로 나온다. 만약 필사자의 반(反)바리새주의를 전제한다면, 이처럼 부정어 ‘οὐδέ(οὐ)’의 생략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3유형의 본문이 지닌 독특성은 필사자의 신학적 편향보다 그의 단순 실수(혼동)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7) NTG<sup>28</sup>의 비평 장치에 소개된 제2유형 본문의 21:29-31상반에 관한 설명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주님(Θ는 κύριε를 생략한다), 내가 하겠습니다.’(Θ, *f*<sup>13</sup>, 700은 ἐγώ 대신 ὑπάγω를 사용한다). 그리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Θ, *f*<sup>13</sup>, 700은 ‘그러나’[δέ]를 덧붙인다) 나중에 뒤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둘째입니다.’(Θ, *f*<sup>13</sup>, 700은 ‘막내’[ἑσχατος]라고 표현한다)

18) 교부 히에로니무스(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 주후 약 347~420년)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Commentariorum in Evangelium Matthaei*) 제4권에서 ‘진정성 있는 사본들에는(in veris exemplaribus)’, ‘막내’(novissimum)가 아니라 ‘첫째’(primum)로 나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판단으로 정죄 받았다’(proprio iudicio condemnentur)고 해설한다(*Patrologia Latina[PL]* 26, 156 참고). 이러한 설명은 히에로니무스가 제3번 유형의 사본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히에로니무스는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에 해당하는 사본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45.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본들의 숫자상으로 볼 때 제1유형이 제2유형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숫자라는 외적 증거만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sup>20)</sup> 따라서 제2유형의 본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외적 증거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내적 증거를 제시한다. 첫째,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salvation-history)라는 주제이다.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구원이 확대되는 모티프가 자주 등장한다.<sup>21)</sup>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며 마태복음의 예수는 열방의 많은 이들이 장차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8:11). 그리하여 마태복음은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의 사역을 ‘이스라엘’로 국한하지만(10:5-6; 15:24), 부활 이후에는 ‘만민’(πάντα τὰ ἔθνη)으로 복음 선포의 대상을 확대한다(28:19-20).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이후에는 열방’이라는 구속사적 순서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구속사와 맞물려 ‘대체주의’라는 모티프(replacement motif)도 함께 발견된다: 이스라엘(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하고 심판에 직면하는 반면, 열방의 성도들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등장한다(8:11-12; 21:33-46; 22:1-14). 현대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스터(P. Foster)가 이러한 구속사적 도식을 ‘두 아들의 비유’에 대입한다.<sup>22)</sup>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첫째 아들의 실패와 열방을 대표하는 둘째 아들의 회심이 나타나는 제2유형의 순서가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판정한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태복음 21:28-32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라는 구속사적 도식과 무관하기 때

20)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84-285. 알란트 부부는 복음서에 관한 한 바티칸 사본이 시내산 사본이나 다른 대문자 사본들보다 탁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Außerdem gilt für den Codex Vaticanus, daß er in der Textqualität in den Paulusbriefen abfällt; in den Evangelien und sonst ist er dem Codex Sinaiticus [und allen andern Majuskeln] weit überlegen, in den Paulinen gilt das nicht.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4, 28 참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에 대해 바티칸 사본이 무조건 원문에 가깝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바티칸 사본도 결국 4세기 후반의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본문에 따라 사본들을 비교하며 원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21) J. D. Kingsbury, “The Structure of Matthew’s Gospel and His Concept of Salvation-History”, *CBQ* 35 (1973), 451-474.

22) P. Foster, “A Tale of Two Sons: But Which One Did the Far, Far Better Thing? A Study of Matt 21.28-32”, *NTS* 47 (2001), 34-36: “Thus the reordering of the responses of the sons is a Matthean device that emphasizes such a salvation history perspective within the evangelist’s narrative.” 그리하여 포스터(P. Foster)는 필사자가 아닌 ‘복음서 기자’ 자신이 제1유형의 자료를 구속사적 흐름에 맞게 제2유형으로 수정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3)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구속사(salvation-history)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전통은 이미 교부 시대부터 있었다. U. Luz, *Matthew 21-28*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32-33 참고.



문이다.<sup>24)</sup> 예수의 설명(31상반-3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회 특권층’과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사회 소외층’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대 ‘민족 안’에서 사회적 계층에 따른 반응의 차이이지, 이스라엘-이방이란 ‘민족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구속사’ 또는 ‘대체주의’ 모티프는 이 본문의 원문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로, ‘문학적 평행성’(parallelism)을 근거로 제2유형의 본문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에는 문학적으로 삼중 구조(triad)가 두드러진다.<sup>25)</sup>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예수의 족보를 총 3구간으로 구획·제시한다(마 1:1-17). 산상수훈의 주기도문도 ‘당신’(σὺ)에 관한 전반부 3문장과 ‘우리’(ὁμοίς)에 관한 후반부 3문장으로 짜여 있다(마 6:9-13).<sup>26)</sup>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두 아들의 비유’ 역시 뒤이어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들과 함께 삼중 구조를 이룬다. 특별히 두 번째 비유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21:33-46)와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의 비유’(22:1-14) 사이에는 구조적인 평행성이 두드러진다. 이 비유들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류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21:33-39; 22:3-6), 이후에 등장하는 부류는 ‘긍정적’으로 묘사된다(21:41상반, 43상반; 22:10). 올름스테드(W. G. Olmstead)는 이러한 문학적 평행성을 앞서 나오는 ‘두아들의 비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7)</sup> 그리하여 ‘첫째가 부정적’이고 ‘둘째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제2유형의 본문이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태복음 안에서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45-25:30에도 ‘종말론적 준비성’(eschatological readiness)에 관한 3개의 비유(24:45-51; 25:1-13, 14-30)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삼중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sup>28)</sup> 그 첫 번째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24:45-51)에서 처음에 소개된 종은 충성스럽지만(45-47절), 이어서 등장하는 종은 악하다(48-51절). 반면에 이어지는 ‘열 처녀의 비유’(25:1-13)에

24) D. Turner, *Matthew*, 510;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vol.3, 171-172.

25) W. D. Davies and D. C. Allis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vol. 1 (Edinburgh: T&T Clark, 1988), 86-87.

26) 산상수훈에서도 이러한 삼중 구조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G. H. Stassen, “The Fourteen Triads of the Sermon on the Mount(Matthew 5:21-7:12)”, *JBL* 122 (2003), 267-308.

27) W. G. Olmstead, *Matthew's Trilogy of Parables*, 167-176.

28) D. A. Hagner, *Matthew 14-28*, 722;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943, 946, 950. 놀랜드(J. Nolland)는 그의 주석에서 마 24:45-25:30의 제목을 ‘Three Parables about Being Ready to Meet the Master (24:45-25:30)’로 표기하고 있다.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2005), 996 참고.

서 처음에 등장하는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2상반절, 3절), 이후에 소개되는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2상반절, 4절).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비유’(25:14-30)에서는 먼저 등장하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은 종들은 충성스러운 반면(16-17절, 20-23절), 끝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18절, 24-30절). 이처럼 마태복음 24:45-25:30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긍정적 부류 → 부정적 부류’의 순서를 보이는 반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부정적 부류 → 긍정적 부류’로 그 순서가 바뀌고 있다. 결국, 비유 3개가 한데 묶여 삼중 구조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반드시 순서적 평행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다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21:33-46)와 ‘혼인잔치의 비유’(22:1-14)에 나타난 인물들의 ‘부정 → 긍정’의 순서는 ‘두 아들의 비유’(21:28-32)에서 꼭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 평행성을 근거로 제2유형의 본문을 지지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다.

이처럼 제2유형의 원문성을 지지할 외적·내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에 제1유형을 원문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설명의 용이성’이란 상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필사자들이 제1유형에서 제2유형으로 변개(變開)하는 경향은 설명이 쉽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가 제1유형을 원문으로 쓴 경우, ‘필사자’ 중에 이 비유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오해하여(위에서 언급한 포스터[Foster]의 경우처럼), 이를 제2유형의 순서(첫째 아들이 부정적, 둘째 아들이 긍정적)로 변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들(21:33-46; 22:1-14)과 ‘문학적 평행’을 맞추기 위해 ‘필사자’가 제1유형의 원문을 제2유형으로 교정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반면에 제2유형이 원문이라면, 굳이 필사자들이 제1유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사자가 문학적 평행성을 고려했거나 이 비유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오해했다면, 이에 잘 맞아떨어지는 제2유형을 제1유형처럼 뒤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sup>29)</sup> 이처럼 필사자들이 제1유형의 원문을 제2유형으로 변개했을 가능성은 그 반대

29) 포스터는 마태의 ‘원자료’(pre-Matthean tradition)가 첫째를 긍정적으로, 둘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으나, 마태 자신은 이를 제2유형으로 수정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만약 그렇다면 제2유형이 원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스터는 후대의 필사 과정에서 마태의 원자료가 다시 사본 전송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제1유형의 사본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추론을 내놓을 뿐, 원자료가 어떻게 필사 과정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P. Foster, “A Tale of Two Sons”, 33.

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다수의 마태복음 주석서들 및 현대어 역본들은 제1유형을 원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30)</sup>

### 3.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국문 번역사에 관한 고찰

이제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국문 번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초의 우리말 신약 완역본은 중국 심양(瀋陽)의 로스(J. Ross)가 주도한 『예수성교전서』(1887)이다. 개화기 내한 선교사들은 이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sup>31)</sup> 서북 방언이 많다는 이유로 결국 새로운 번역을 ‘국내’에서 착수하게 되었다.<sup>32)</sup> 그리하여 1893년부터 ‘성경번역자회’(聖經翻譯者會,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 이하 ‘번역자회’ — 가 조직되어 1900년에 드디어 『신약전서』를 완역·출간하게 되었다.<sup>33)</sup> 바로 이 역본이 오늘날 『개역개정』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다. 그런데 『신약전서』(1900)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 『개역개정』과 달리, 당시 번역자회는 제1유형을 바탕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번역했다는 것이다.

(21:28-31上) 그러나 너희 심각에는 엇더호뇨 혼 사람이 두 아들이 잇  
는디 맛 아들의게 날으디 아들이 오날 포도 동산에 가서 일하라 하니 디  
답호디 슬소이다 호더니 그후에 누우쳐 가고 그 둘재 아들의게 쏘 이 곳  
치 말호니 디답호디 가갓느이다 호고 가지 아니 호였시니 그 둘중에 누  
가 아버 뜻을 행호였느뇨 호시니 곶으디 맛 아들이니이다

30) U. Luz, *Matthew 21-28*, 25-26; D. R. A. Hare, *Matthew*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246-247; K.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270-271;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859-860; W. D. Davies and D. C. Allison, *Matthew*, vol. 3, 167-169; D. A. Hagner, *Matthew 14-28*, 611-612. 오버만(J. A. Overman)과 해링턴(D. J. Harrington)은 본문비평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제1유형의 본문을 전제하고 주석을 하고 있다: J. A. Overman, *Church and Community in Cris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296-297;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298-301.

31)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100-101.

32)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48-149.

3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참고.

그렇다면, 당시 번역자회는 왜 제1유형의 본문을 채택·번역하게 되었을까? 이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전서』(1900)의 번역에 사용된 저본(底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sup>34)</sup> 당시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조사(助事)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중국의 한역본(漢譯本)을 바탕으로 우리말 초벌 번역을 작성·제공해 주었다. 이때 저본으로 사용된 한역(漢譯) 성경은 문리체(文理體) 역본인 <대표역본>(代表譯本, Delegates' Version, 1852)이었다.<sup>35)</sup> 그리고 조선인 조사들이 구어체(官話體) 역본 중에서 <북경관화역본>(北京官話譯本, 1872)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36)</sup> 두 한역본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역본>

人有二子、謂其長者曰、子、今日往葡萄園工作、對以不可、後悔而往、命其次子亦如之、對曰、主、諾、既而不果往、爾意何如、二者、孰遵父旨乎、曰、**長子**、

(私譯: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장자에게 말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렴.” [그는] 불가하다고 대답했다.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 차자에게 또한 그와 같이 명했다.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않았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두 사람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이르되, “**장자입니다.**”)

<북경관화역본>

耶穌又說、一個人有兩個兒子、先對他大兒子說、我兒、你今日到葡萄園作工去。大兒子說、我不去、後來懊悔就去了。對他二兒子也是這樣說。二兒子說、父啊、我去、他卻不去。你們想這兩個兒子、誰是遵父命的。他們回答說、**大兒子**

(私譯: 예수께서 또한 이르시되,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먼저 그의 큰아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오늘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렴.” 큰아들이 말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 후에 뉘우쳐 곧 갔다. 그의 둘째 아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

34)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7), 65-92.

35)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89 참고.

36) 한글 성경에 끼친 <북경관화역본>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 논문 참고: 김태섭, “『개역개정』 마태복음 1:21의 ‘백성’(λαός)과 21:43의 ‘백성’(έθνος)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45 (2019), 93-113.

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그러나 가지 않았다. 너희들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명을 따른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한다. “큰 아들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표역본>과 <북경관화역본>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문체와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한역본 모두 제1유형의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역본들에 기반한 조선인 조사들의 초벌 번역은(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전서』(1900)의 번역에 활용된 그리스어 및 영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인 조사들의 초벌 번역을 토대로, 당시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공인본문’(Textus Receptus) 및 <팔머(Edwin Palmer)의 인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 그리고 영어 <제임스왕역>(the King James Version)과 <영어개역>(the English Revised Version, 1881)을 번역에 활용했기 때문이다.<sup>37)</sup> 이 그리스어 판본들 및 영어 역본들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은 다음과 같다(이하의 그리스어 판본들은 시내산 사본과 큰 차이가 없다면 번역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만 긋도록 한다).

공인본문 <스테파누스판>(1550)<sup>38)</sup>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μου ὁ δὲ

37) 켄뮤어(A. G. Kenmure)가 1893년에 영국성서공회(BFBS) 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번역자회에서 어떤 성경들을 참고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의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기로 동의함. ‘공인본문’(Textus Receptus)과 일치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 권리를 가지면서 ‘영어성경 개역본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이 번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 한국어에서 그 기초는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임.”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5에서 재인용. 여기서 ‘영어성경 개역본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은 1881년에 팔머(E. Palmer)가 펴낸 인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의미한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6.

38)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의 뿌리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가 간행한 인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1516)에서 시작한다. 에라스무스의 신약 본문은 이후 파리의 스테파누스(R. Stephanus), 제네바의 베자(Théodore de Bèze) 그리고 네덜란드의 엘제비어(Elzevir) 형제들에게까지 이어진다. 특히 엘제비어(Elzevir) 형제들은 1633년에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제2판> 서문에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그러므로 이제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진 본문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이라는 문구를 쓰게 되었고, 여기서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αὐτῷ **Ὁ πρῶτος**

<팔머판 신약성경>(1881)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 τέκνα δύο·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Ὁ πρῶτος.**

<제임스왕역>(1611)

But what think ye? A *certain* man had two sons; and he came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work to day in my vineyard. He answered and sai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And he came to the second, and said likewise. And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Whether of them twain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y unto him, **The first.**

<영어개역>(1881)

But what think ye? A man had two sons; and he came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work today in the vineyard. And he answered and sai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himself, and went. And he came to the second, and said likewise. And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Whether of the twain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y, **The first.**

상기한 그리스어 성경 판본들 및 영어 역본들 사이에 미시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sup>39)</sup>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가 제1유형의 본문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으나, 결국 아버지

39) <스테파누스판> 공인본문에는 <팔머판 신약성경>과 달리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뒤에 ‘μου’라는 1인칭 단수 속격이 붙어 있고, 공인본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영어 <제임스왕역>에도 <영어개역>의 ‘in the vineyard’에 없는 소유격 ‘my’가 등장하는 것(‘in my vineyard’)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파누스판> 공인본문에는 <팔머판>에 없는 3인칭 단수 여격 ‘αὐτῷ’가 ‘λέγουσιν’ 뒤에 나오며, 이에 따라 <제임스왕역>에도 <영어개역>과 달리 ‘They say’ 다음에 ‘unto him’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비유의 전체적 의미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의 뜻을 따라 일하러 간 아들은 ‘첫째’(ὁ πρῶτος, the first)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신약전서』(1900)의 번역에 활용된 ‘주석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성서공회(BFBS) 한국지부 총무였던 켄뮤어(A. G. Kenmure)에게 번역자회가 요청한 비평 주석서들은 다음과 같은 3종이었다: <엘리코트 신약주석>(Ellicott’s Commentary on the NT), <마이어 신약주석>(Meyer’s Commentary on the NT),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Alford’s Greek NT).<sup>40)</sup> 먼저, 총 3권으로 구성된 <엘리코트 신약주석>은 영국 국교회 신학자인 엘리코트(C. J. Ellicott)가 편집·간행한 것이다. 비록 서문에서 다양한 사본들 및 번역본들을 소개하고 있지만,<sup>41)</sup>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따라 <제임스왕역>(the King James Version)을 주석 전체의 기본 본문으로 삼고 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임스왕역>에는 첫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엘리코트 신약주석>에 수록된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본문 및 해설은 제1유형을 따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둘째로, <마이어 신약주석>은 독일의 성서학자 마이어(H. A. W. Meyer)가 1832년부터 1859년까지 총 16권으로 집필한 신약 주석집이다. 이는 개정 증보를 거치며 20권의 영역본으로 출간되었다. 마이어는 신약 각 장(章)의 주석을 시작하면서 주요 절(節)들의 이문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제1유형의 본문을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원문으로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제2유형의 사본들은 두 아들을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후대의 필사자’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sup>43)</sup> 마지막으로 언급할 주석은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이다. 저자인 헨리 알포드(H. Alford)는 그리스어 신약 본문 아래에 다양한 이문(異文) 읽기 및 신학적 해설을 제공한다. 그는 본문비평가답게 여러 사본들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재구성한 그리스어 본문을 제시한다.<sup>44)</sup> 그가 제안한 마태복음 21:28-31상

40)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8. 여기에 열거된 주석들의 영문명 — ‘Ellicott’s Commentary on the NT’, ‘Meyer’s Commentary on the NT’, ‘Alford’s Greek NT’ — 은 해당 주석들의 공식적인 제목이 아니라, 켄뮤어에게 요청한 자료 목록에 나온 명칭들을 옮긴 것이다.

41) C. J. Ellicott, ed., *A New Testament Commentary for English Readers*, vol. 1 (London; Paris & New York: Cassell Peter & Galpin, 1878), xv-xxvi.

42) C. J. Ellicott, ed., *A New Testament Commentary*, 132. 마태복음은 당시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신약 교수였던 플럼프터(E. H. Plumptre)가 주석하였는데, 아쉽게도 마 21:28-31상반과 관련한 본문비평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43) H. A. W. Meyer,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Gospel of Matthew*, vol. 2 (Edinburgh: T&T Clark, 1874), 56.

44) H. Alford, *The Greek Testament: with a Critically Revised Text: a Digest of Various Readings: Marginal References to Verbal and Idiomatic Usage: Prolegomena: an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1 (London: Rivingtons, 1863), 81-84에서 알포드(H. Alford)는

반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ἑ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Ὁ πρῶτος**.<sup>45)</sup>

이처럼 알포드의 본문도 시내산 사본과 내용면에 있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접속사 ‘καί’(그리고)와 ‘δέ’(그러나) 및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을 더 추가한 면이 있지만, 이는 전체 내용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결국 알포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은 첫째(ὁ πρῶτος)로 판정한 것이다. 이처럼 번역자회에서 참고한 3종의 주석서들은 모두 제1유형의 본문을 원문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번역자회에서 참고한 저본들과 주석서들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은 한결같이 제1유형의 본문을 원문으로 판정한다. 당시 영국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1881)이 제2유형의 본문을 채택하긴 하였으나,<sup>46)</sup> 번역자회가 이를 참고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약전서』(1900)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로 ‘첫째’가 등장하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말 『개역개정』은 왜 이러한 결정을 뒤집

본문비평의 원칙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106-140쪽에는 자신의 주석서에 언급된 사본들, 역본들, 교부의 글들을 열거하고 있다.

45) Ibid., 212-213에서 발췌.

46)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προσελθὼν δὲ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Ὁ ὕστερος 이를 사역(私譯)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에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렴.”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원치 않습니다.”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한다. “**후자입니다.**”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는 본문비평에 있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B. M. Metzger and B.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79).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경우에 바티칸 사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4). 여기서도 시내산 사본이 아닌, 바티칸 사본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결과적으로 제2유형의 본문을 채택하게 되었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성경개역』(1938)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전서』(1900)는 이후에 수정·보완을 거쳐 1906년에 ‘공인역’ 『신약전서』로 출간되었고,<sup>47)</sup> 번역자회는 1911년에 이를 『구약전서』와 합본하여 『성경전서』를 간행하게 된다.<sup>48)</sup>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한국어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겪게 되고, 선교사들 사이에 성경의 원어(原語)에 대한 지식도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성경전서』(1911)의 개역(開譯)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sup>49)</sup> 그리하여 1926년에 ‘신약개역자회’(新約改譯者會)가 조직되었고, 1937년 봄에 이르러서 신약의 개역 작업은 완료되었다.<sup>50)</sup> 그리고 마침내 1938년에 경성(京城)에서 신·구약 개역을 총망라한 『성경개역』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당시 개역자회는 개역을 위한 저본으로 영어 역본들 외에 네스틀레(E. Nestle)의 1923년 판(版) <그리스어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Graece, 12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sup>51)</sup> 흥미로운 점은 네스틀레의 NTG<sup>12</sup>가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본문으로 제2유형을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 NTG<sup>12</sup>(1923)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προσελθὼν δὲ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ὁ ὕστερος.

(私譯: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애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렴.”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원치**

47) 『신약전서』는 총 5단계로 준비 및 출간되었다. (1) 개인 역본 (2) 임시 역본 (3) 번역자회 역본 (4) 시험 역본 (5) 공인 역본.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9-46;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89-90 참고.

48)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61-82.

49) 구약의 개역 작업은 신약보다 일찍 1911년에 시작되어 1937년에 마무리된다. Ibid., 120-160 참고.

50) Ibid., 160-169.

51) Ibid., 171. 이 책에는 1923년 판 NTG가 제14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1923년 판은 NTG의 제12판이다. NTG<sup>25</sup>(1963)의 속표지 뒷면을 보면, 제25판에 이르기까지 NTG의 역대 판본과 그 출판연도의 목록이 나와 있다.

**않습니다.”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한다. **“후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TG<sup>12</sup>는 바티칸 사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비록 그리스어 표현에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sup>52)</sup> 결국에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은 양자가 동일하다. 바로 이 NTG<sup>12</sup>를 개역자회가 주요 저본으로 사용하여 번역하면서<sup>53)</sup> 『성경개역』(1938)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성경개역』(193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엇더하뇨 한 사람이 두 아달이 잇는데 맛아달 의게 가서 낄아대 애 오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야 갈아대 아버지여 가갓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재 아달**의게 가서 또 이갓치 말하니 대답하야 갈아대 **술소이다 하더니 그후에 뉘우치고 갔스니** 그 둘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나뇨 갈아대 **둘재 아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개역』(1938)부터 제2유형의 본문이 수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당시 개역자회에서 활용한 저본은 NTG<sup>12</sup>만이 아니었다. 국권피탈(1910년) 이후 2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개역자회의 한국인들은 중국의 한역본보다 일본어 성경에 더 익숙했다. 그리하여 개역 과정에는 일본어 성경의 영향(특히 일본식 한자)도 확인할 수 있는데,<sup>54)</sup> 당시 개역자회가 참고했던 일본어 성경은 <다이쇼 개역>(大正改訳, 1917)이었다.<sup>55)</sup> 이것은 기존의 <메이지 성서>(明治聖書 또는 明治元訳, 1887)를 개역한 것인데,<sup>56)</sup>

52) ‘두 아들’을 바티칸 사본은 ‘ΔΥΟ ΤΕΚΝΑ’라고 표현한 반면, NTG<sup>12</sup>는 이 순서를 바꿔서 ‘τέκνα δύο’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NTG<sup>12</sup>는 첫 번째로 나오는 접속사 ‘ΚΑΙ’와 ‘ΑΜΠΙΕΛΩΝΙ’ 다음에 나오는 1인칭 단수 속격 ‘ΜΟΥ’를 생략했다. 이러한 미시적 차이들은 전체적인 의미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53) 나채운은 초기의 몇몇 우리말 역본들이 중국 한역본의 중역(重譯)이었던 것과 달리, 『성경개역』(1938)의 경우,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으로 간주했다.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0), 341. 또한 『대한성서공회사 II』에서도 개역자회가 1923년 판 네스틀레의 본문(NTG<sup>12</sup>)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171.

54) 히로 다카시(廣剛), “한글 번역 성서의 한자어에 대한 일본어 성서의 영향 연구—한글 <개역>과 일본어 <大正譯>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12 (2005), 193-211.

5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172.

56) K. Shimasak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 (2009), 121-122.

<다이쇼 개역>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은 다음과 같다.<sup>57)</sup>

なんぢら如何に思ふか、或人ふたりの子ありしが、その兄にゆきて言ふ「子よ、今日、葡萄園に往きて働け」 答へて「主よ、我ゆかん」と言ひて終に往かず。また弟にゆきて同じやうに言ひしに、答へて「往かじ」と言ひたれど、後くいて往きたり。この二人のうち孰か父の意を爲しし彼らいふ『後の者なり』

(私譯: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형에게 가서 말했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에 가지 않았다. 또한 동생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안 갑니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후회하며 갔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후자입니다.”)

이처럼 <다이쇼 개역>은 제2유형을 따라 마태복음 21:28-31상반을 번역했다. <다이쇼 개역>은 네스틀레의 NTG<sup>5</sup>(1904)를 저본으로 삼았는데,<sup>58)</sup> 사실 네스틀레의 NTG는 초판(1898)을 출간했을 때, 제1유형을 원문으로 채택했다. 이후 NTG<sup>2</sup>(1899)에도 제1유형이 존치되다가 NTG<sup>3</sup>(1901)부터 제2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NTG<sup>25</sup>(1963)에까지 유지된다.<sup>59)</sup> 그래서 NTG<sup>5</sup>(1904)를 저본으로 삼은 <다이쇼 개역>도 제2유형의 본문을 따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성경개역』(1938)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NTG<sup>12</sup>와 <다이쇼 개역> 모두 제2유형을 원문으로 판정한 것을 알 수 있다(참고로 NTG<sup>26</sup>[1979]은 다

57) 한편, <메이지 성서>(明治聖書, 1887)의 마 21:28-31상반은 다음과 같다: <sup>21:28</sup>爾曹いかに意ふや或人二人の子ありしが長子に來りて曰けるは子よ今日わが葡萄園に往て働け <sup>29</sup>答て否と曰しがのち悔て往たり <sup>30</sup>また次子にも前の如く曰けるに答て君よ我往べしと曰しが遂に往ざりき <sup>31</sup>此二人のもの孰か父の旨に遵ひし彼等いひけるは長子なり (私譯: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애야, 너는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하고 말하였다. 대답하되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후회하며 갔다. 또한 차자에게도 전과 동일하게 말했더니 대답하기를 “아버지여, 나는 갑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았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 것인지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장자입니다.”) 이처럼 메이지 성서는 제1유형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58) 히로 다카시(廣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36. 히로 다카시는 네스틀레의 1904년 개정판을 4판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실제로 1904년 판은 5판에 해당한다. 일본의 개역위원회는 영어 성경 중에 <영어개역>(the English Revised Version, 1881)도 참고하였다. <영어개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제1유형을 마 21:28-31상반의 원문으로 수록했으나, 개역위원회는 NTG<sup>5</sup>(1904)를 따라서 제2유형을 원문으로 채택했다.

59) NTG<sup>3</sup>(1901)과 NTG<sup>25</sup>(1963)의 마 21:28-31상반은 위에서 인용된 NTG<sup>12</sup>(1923)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곳에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시 제1유형을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원문으로 삼았고, 이 전통은 최근 NTG<sup>28</sup>[2012]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전쟁 중에도 『성경개역』(1938)의 철자법을 수정하여 1952년 9월에 부산에서 『개역한글』을 출간하게 되었다. ‘한글’이라는 표현은 당시 정부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기존의 『성경개역』을 새 철자법으로 교정했다는 의미이다.<sup>60)</sup> 그리고 『개역한글』의 철자를 더 손질한 재수정판이 1961년에 출간되었다. 『개역한글』의 재수정판은 단어나 어절의 오역과 음역 및 어순을 일부 교정한 경우도 있으나,<sup>61)</sup> 주된 결과는 철자의 재수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개역한글』 초판과 재수정판의 마태복음 21:28-31상반은 철자가 달라졌을 뿐, 『성경개역』(1938)의 본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에 대한성서공회는 1983년부터 ‘개역한글판 수정 원고’를 작성하여 1998년에 『개역개정』 초판을 내놓게 된다. 『대한성서공회사 III』을 보면, 『개역개정』의 개정 원칙 13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원칙은 다음과 같다: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감안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 개정함으로써 개역한글판의 번역을 최대한 존중한다.”<sup>62)</sup> 결국 『개역개정』도 『개역한글』의 번역을 유지한 채, 이를 현대어로 수정하는 데에 주력한 것이다. 물론 오역(誤譯), 비문(非文), 혐오 표현, 사투리, 맞춤법 등을 개선한 것은 『개역개정』의 중요한 성과이다.<sup>63)</sup> 다만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번역이 『성경개역』(1938)의 본문 형태를 답습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의 개정 원칙 중 마지막 제13번째 원칙이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이 사용한 원본을 존중하며, 원문 대조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최근의 편집 본문 『신약 그리스어 성경』(GNT<sup>4</sup>)과 『구약 성경』(BHS)까지 철저히 대조한다.”<sup>64)</sup>

여기에 보면, 원문과 관련한 문제는 GNT<sup>4</sup>(*Greek New Testament, United Bible Societies* 4판)와 철저히 대조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왜냐하면 GNT<sup>4</sup>는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본문을 다

60)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한일문화사, 2020), 58.

61) Ibid., 144-146.

62) Ibid., 388.

63) Ibid., 390-395.

64) Ibid., 389.

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5)</sup>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ώ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ὕπα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ἀμπελῶνι.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προσελθὼν δὲ τῷ ἐ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λέγουσιν, Ὁ πρώτος.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NT<sup>4</sup>는 원문으로 제1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문 유형은 최근의 5판(GNT<sup>5</sup>, 2014)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개정 원칙과는 달리 『개역개정』이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번역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구나 『개역개정』의 난하주(欄下註)에도 관련된 이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개역개정』의 개정의 경우, 본문에는 제1유형을, 난하주에는 제2유형을 수록해 줄 것을 제안해 본다.

#### 4. 나가며

국내에서 『신약전서』(1900)가 완간된 지 어느덧 120년이 훌쩍 지났다. 한국교회의 성경은 약 30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고, 이제 『개역개정』의 개정을 준비하는 시점이 됐다. 이에 즈음하여 본 소고(小考)는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본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본문의 우리말 번역사를 다루면서, 향후 개정을 위한 변화를 제안했다. 물론 여타의 한글 역본들이 이미 제1유형을 본문으로 번역·출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개역개정』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한글 역본은 없다. 앞으로 『개역개정』의 개정이 나온다면, 이는 다음 한 세대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할 성경이 될 것이다. 이에 개정 위원회에서 마태복음 21:28-31상반의 원문과 번역에 대해 재고(再考)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소고를 갈무리한다.

65) 비록 비평 장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GNT<sup>4</sup>는 NTG<sup>27</sup>(1993)과 동일한 본문을 수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NTG는 26판(1979)부터 마 21:28-31상반의 원문으로 제1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통은 NTG<sup>27</sup>과 최근의 NTG<sup>28</sup>(201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제어>(Keywords)

마태복음,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28-32, 본문비평, 개역개정.

Matthew, parable of the two sons, Matthew 21:28-32, textual criticism, New Korean Revised Version.

(투고 일자: 2022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태섭, “『개역개정』 마태복음 1:21의 ‘백성’(λαός)과 21:43의 ‘백성’(ἔθνος)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45 (2019), 93-113.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다카시(廣剛), 히로, “한글 번역 성서의 한자어에 대한 일본어 성서의 영향 연구—한글 <개역>과 일본어 <大正譯>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12 (2005), 193-211.
- 다카시(廣剛), 히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한일문화사, 2020.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75-125.
-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45-158.
-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65-92.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99-132.
- Aland, K. a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sowie in Theorie und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Alford, H., *The Greek Testament: with a Critically Revised Text: a Digest of Various Readings: Marginal References to Verbal and Idiomatic Usage: Prolegomena: an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1, London: Rivingtons, 1863.
- Davies, W. D. and Allison, D. C.,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vol. 1, Edinburgh: T&T Clark, 1988.
- Davies, W. D. and Allison, D. C.,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vol. 3, Edinburgh: T&T Clark, 1997.
- Ellicott, C. J., ed., *A New Testament Commentary for English Readers*, vol. 1, London; Paris & New York: Cassell Peter & Galpin, 1878.
- Foster, P., “A Tale of Two Sons: But Which One Did the Far, Far Better Thing? A Study of Matt 21.28-32”, *NTS* 47 (2001), 26-37.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squet, F. A., ed., *Codex Vercellensis*, Roma: Fridericus Pustet, 1914.
- Hagner, D. A., *Matthew 14-28*, Dallas: Word Books, 1995.
- Hare, D. R. A., *Matthew*,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 Jones, I. H., *The Matthean Parables: A Literary and Historical Commentary*, Leiden: Brill, 1995.
- Kingsbury, J. D., "The Structure of Matthew's Gospel and His concept of Salvation-History", *CBQ* 35 (1973), 451-474.
- Luz, U., *Matthew 21-28*,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sup>nd</sup>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2.
- Metzger, B. M. and Ehrman, B. 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sup>th</sup>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eyer, H. A. W.,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Gospel of Matthew*, vol. 2, Edinburgh: T&T Clark, 1874.
- Michaels, J. R., "The Parable of the Regretful Son", *HTR* 61 (1968), 15-26.
-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2005.
- Olmstead, W. G., *Matthew's Trilogy of Parables: the Nation, the Nations and the Reader in Matthew 21.28-22.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Overman, J. A., *Church and Community in Cris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Shimasaki, K.,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 (2009), 116-126.
- Snodgrass, K.,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Stassen, G. H., "The Fourteen Triads of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21-7:12)", *JBL* 122 (2003), 267-308.
- Turner, D. L., *Matth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Abstract>

## **A Reflection on the Text Types of Matthew 21:28-32 and Its Korean Translation History**

Tae Sub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resent article attempts to study the text types of Matthew 21:28-32 (the parable of the two sons) and its Korean translation history, and to put forward a suggestion for the upcoming revis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There are mainly three text types of Matthew 21:28-32. The first type represented by the Codex Sinaiticus portrays the first son as the naysayer but fulfilling his father's will. The second type as in the Codex Vaticanus favors the second son as being obedient in the end. The third type as appears in the Codex Bezae describes the first son as repentant to answer his father's request, but it features Jewish leaders who give Jesus a perverse answer that ironically commends the second.

The current NKRV provides a translation based on the second type of the text. In contrast, the Korean New Testament (KNT, 1900), the first full NT translation in Korea considered the first type to be the original. At that time,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used Chinese bibles to draft the Korean translation, which then was emended and improved based on the KJV, the ERV, and the Palmer's Greek New Testament (1881). They also referred to the three critical commentaries written or edited by Charles J. Ellicott, Heinrich A. W. Meyer and Henry Alfor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ll these resources prefer the first type as the original for Matthew 21:28-32. This can explain why the translation in the KNT (1900) is different from the present NKRV.

This difference was, in fact, occasioned by the KRV (Korean Revised Version, 1938). Since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 1910, Koreans got used to Japanese bible. Thus, the revision committee used not only the NTG<sup>12</sup> (1923) but also the Taisho Revised Version (1917) as its source text.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two Greek and Japanese bibles show Matthew 21:28-32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type. This gave rise to the change of the text type in the KRV. From this revision onward, its translation has been passed down to the

current NKRV with no great change in its content. However, the majority of the Matthean scholars and textual critics now consider the first type closer to the original for Matthew 21:28-32.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ts text type for the future revision of the NKRV.